

몸의 경험과 확장성에 나타난 윤리적 함의들

- 관계성의 회복과 몸의 전일성

김광연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몸 이해

1.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래
2. 기관없는 신체와 생물학적 몸의 완전성

III. 현실적 존재와 유기적 존재로서의 신체

1.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체와 '살아있음'의 유기적 존재
2.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매개적 존재로서의 신체

IV. 신체의 매개성과 유기적 존재들의 함의들

1. '신체적 매개'로서의 유기적 존재: 정서와 느낌
2. 유기적 존재와 몸의 확장성: 인간, 자연, 하나님과의 관계성

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7>

• ABSTRACT •

The Ethical Implications of Bodily Experience and Extensibility:
Restoring of the relationships and the wholeness of Body

Research Faculty, Kim, Gwang-yeon (Soongsi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transhuman age the changes in our mechanistic society raise numerous ethical implications.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lead to a loss of organic value for the human body in future societies. Above all, in the transhuman age, the human body pursues biological perfection. According to A.N. Whitehead, organic beings establish a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on and extinction. Organic beings are subjects who experienc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y go through a process of 'creative advance' toward the future. Organic beings are subjects of experience who lead a process of chang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machines.

In Christianity, the perfection of the human body does not lie in biological immortality. The fragile human body, trapped in sin, is perfected through relationships. This article critiques the biological perfection of the body emerging in the era of transhumanism. Furthermore, the perfection of the body is rediscovered not in the augmentation of biological functions, but i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God, humanity, and nature.

Key words: Transhumanism, Wholeness, Biological perfection,
Interrelationship, Actual Entity, Organic relationship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화이트헤드(A.N.Whitehead)의 현실적 존재와 그것의 함의를 통해 신체적 매개로서의 유기적 존재를 다루고 있다. 그는 유기적 존재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와 타자의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는 주체라고 말한다. 인간의 신체 즉 유기적 존재인 인간의 몸과 자연 존재는 기계중심 사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존재론적 가치를 가진다. 이 논문은 트랜스휴먼 시대에 신체의 매개성과 현실적 존재로서의 유기적 존재의 가치를 찾고, 기계 또는 휴머노이드와 같은 존재들의 등장으로 인해 사라질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존재를 살피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더하여 기술중심 시대에 이해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트랜스 휴먼 시대에 인류는 완전한 몸을 추구하면서 영생의 실현을 위해 신체를 증강하고 있다. 과학 기술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인류는 신체를 증강하여 생물학적 몸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트랜스휴먼 시대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기계론적 사회의 변화들에 대해 다룬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 존재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과 자연의 유기적 존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음으로 이 글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등장할 기계론적 사회에 대한 염려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술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게 될 자연과 신체의 존재론적 가치들의 상실이 가져올 변화들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은 과학기술 시대에 인간 몸의 왜곡된 완전성에 대해 비판한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몸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몸의 완전성은 단순한 신체의 증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유기적 몸의 연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연과의 관계성,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으로의 확장을 통해 진정한 몸의 완전성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몸 이해

1.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래

인류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기계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편리성은 더하겠지만, 실제로 그로인한 위험은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기계 사회로의 전환에 의해 기계에 지배받는 계기들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기계사회에서 가장 화두로 제기되는 시대를 손꼽는다면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한다. 닉 보스트롬(N. Bostrom)은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의 신체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 조건을 개량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회적 변화”라고 말했다.¹⁾

트랜스휴머니즘은 휴머니즘에서 완전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넘어가는 중간기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등장할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기존의 인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가 끝날 무렵,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때는 인간 향상이 더욱 구체화 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 신체기능의 향상이 더

1)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서울: 아카넷, 2016), 30-31.

육 구현되면 더욱 강하고 똑똑한 인간의 탄생이 예상된다.²⁾

가깝거나 또는 먼 미래에 인류는 기계에 대한 의존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기계화 시대를 예상하고 있다. 휴머신(humachines)은 인간과 기계의 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한 용어이다. 과학자들은 디지털 정보의 양이 엄청나고 기계보다 더욱 직관적이고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드는 자동화된 인간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³⁾ 휴머신은 휴머니즘(humanism)과 머신(machine)의 합성어로서 이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 시대를 주제로 하는 인간과 흡사한 사이보그 영화들이 휴머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만화의 원작을 영화로 재개봉한 공각기동대(2017)는 인간의 몸에 기계를 이식시키는 생명 연장 기술을 선보인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몸은 기계이지만 두뇌는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이보그이다. 영화는 인간의 생각과 기계 사이에서의 흐릿한 경계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트랜스휴먼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면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AI 기술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에 대한 긍정/부정의 측면을 숙지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인간과 흡사한 존재에게 부여할 인간의 신체(몸)와 유기적 존재로서의 차별성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영화들은 차고 넘친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영화 중 2004년에 개봉된 아이로봇(I.Robot)은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출연하여 2035년 로봇이 일상인 사회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로봇이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택배를 배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트랜스휴먼 시대에 접

2)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17), 65-66.

3) 로버트. 페페렐, 이선주 역, 『포스트휴먼의 조건』 (서울: 아카넷, 2017), 97-198.

어 들고 있다. 이미 우리는 기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기계가 없으면 인류는 대량 생산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 질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존재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이고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도구적 기계에서 인간과 같은 기계(휴머노이드)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존재들에 대한 가치와 권리까지 요구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⁴⁾

포스트휴먼 시대가 새로운 차별이나 착취와 같은 불평등을 만들어 낼지, 이 시대에 새로운 인간이라는 종(種)의 출현이 시작될지 또는 인간의 종말이 시작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다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공존’이라는 키워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 이 글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유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몸(신체)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학적 제고에 초점을 둔다. 앞으로 기계중심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 동안 인간의 삶과 사회를 구성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존재의 역할과 그것으로 인한 변화의 과정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계사회가 오게 되면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존재가 지닌 가치들이 재조명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화이트헤드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유기적 존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기체에서 각각의 부분들과 조직들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유기체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나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식물이나 동물을 예로 들어, 그들의 신체를 분해한다면, 각각의 부분들은 손상될 것이고, 신체 전체는

4) 홍성원,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41-42.

5) 슈테판 헤어브레히트, 김영순·김웅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46.

죽게 되어 유기체의 기능을 되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⁶⁾ 현실적 존재는 기계가 아닌 유기적 존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이트헤드가 본 유기체적 존재는 단순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와는 너무 다르다. 기계 사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살아있는 유기체적 존재의 상실은 그 어떤 요소보다 유기적 존재의 가치를 더욱 요청하게 만든다.

2. 기관없는 신체와 생물학적 몸의 완전성

비유기적인 기계와 달리, 인간의 몸은 유기적 존재로서 ‘정서’를 통해 외부 세계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다. 정보 또는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식 또는 저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방식과는 다르게 인간의 몸(신체)은 외부 세계의 다양한 여건을 자기 창조적 활동을 통해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화 사회는 유기적 존재의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넘어서는 자연의 가치를 기계화 내지는 알고리즘적 환원으로 바꾸려는 형태 속에서 유기적 존재의 가치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 몸(신체)의 구성 요소를 유기체적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뇌의 뉴런 신경세포를 계산 또는 연산 장치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보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 시대에 알고리즘⁷⁾은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다. 인간의 지능과 마찬가지로 AI 기술 시대에 기술적 지능

6) 토마스 호진스키, 장왕식·이경호 역, 『화이트헤드철학 풀어읽기』 (서울: 이문출판사, 2006), 64.

7) 알고리즘은 주어진 작업을 마치기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 수학이나 공학 그리고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지침 또는 명령어이다.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지능을 넘어 인간과 흡사한 의식화 과정에서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과학자들은 알고리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폴린 콜먼, 김동환 · 최영호 옮김, 『휴먼알고리즘』 (서울: 씨아이알, 2002), 10-11.

은 모든 유기체를 단순하게 알고리즘으로 보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기준으로 인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명의 복제 가능성은 높아지고 기술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보는 시대가 오고 있다.⁸⁾

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계산 기계와 동일하게 보는 심신 동일론⁹⁾의 흐름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추론과 지각, 언어와 학습이 인간의 지능을 학습하는 기계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주도했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계를 모델로 삼은 컴퓨터 시스템 신경망을 통해 지능적 응용을 개발하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신경망에 초점을 맞추고 컴퓨터 스스로가 작동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두뇌를 모델링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실현되고 있다.¹⁰⁾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계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특정 작업을 다루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간주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신은 두뇌에서 작용하거나 처리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것이다.¹¹⁾

앞으로 인간의 두뇌와 의식을 컴퓨터(기계)에 이식하는 기술들이 등장하여 인터페이스가 보편화 될 수 있다. 인간-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두뇌에 이식된 칩 통해 두뇌와 직접 연결되고 이를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 슈퍼컴퓨터는 인간의 두뇌 활동보다 더욱 빠른 속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다. 이는 신경망의 크기

8) 폴린 콜먼, 『휴먼알고리즘』, 10-11.

9) 심신 동일론은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는 과학적 입장과 잘 맞아서 정신과 인간의 두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뇌과학의 발달로 더욱 주목받는 주장이다.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35.

10) 폴린 콜먼, 『휴먼알고리즘』, 65.

11)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46.

나 연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인지 구조를 재구성 및 다양한 층위를 더할 경우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열릴 수도 있다.¹²⁾ 게다가 인류는 트랜스휴먼 시대에 생명의 연장을 넘어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로 나아간다. 인류는 마침내 몸을 기계로 대체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정복하고 신체의 증강을 향해 질주한다.

과거 도구나 기계는 인간의 몸과 구분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었다. 도구나 기계는 주체인 인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 주는 의족이나 의수의 기술을 넘어서서 이젠 인간의 몸과 ‘이음매 없는(semless)’ 형태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제 2의 신체’의 등장이 예상된다.¹³⁾ 이러한 시대에 인류는 앞으로 몸의 존재, 유기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염려를 가지고 있다. 트랜스휴먼 시대에 인간과 기술의 연계성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오스트리아 철학자 귄터 안더스(G.Anders)는 “인간의 몸에 대한 공학으로 향한 질주는 인간을 사물화 하는 것이며, 인간을 비인간화로 간주하는 도구의 상태로의 질주”라고 표현했다.¹⁴⁾ 사이보그의 등장으로 [인간-기계의 경계선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 존재와 그것의 가치들은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질문들이다.

III. 현실적 존재와 유기적 존재로서의 신체

1.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체와 ‘살아있음’의 유기적 존재

기계론적 사회에서 등장하는 변화들로 인해 미래 사회는 유기체적 존

12) 위의 책, 90-95.

13)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88-89.

14) 슈테판 헤어브레히트, 김영순·김웅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246-247.

재 즉 자연을 비롯해서 인간 몸의 유기적 존재의 가치들이 상실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글은 기계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유기체적 존재와 그것의 함의를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는 유기체적 존재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단위인 ‘현실적 존재(Actual Entities)’를 언급한다. 그는 모든 존재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적 형태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현실적 존재는 이런 변화의 근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변화는 시공간 안에서의 기초가 된다. 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건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유기적 존재는 상호작용하고 자연을 포함한 인간 그리고 유기체에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¹⁵⁾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는 경험¹⁶⁾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이 과정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현실 세계는 자기 구성의 활동 중에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를 이런 존재들의 구성체라고 본다.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는 생성 가운데 존재하고, 현실적 존재의 ‘있음’은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고 했다.¹⁷⁾ ‘있음’ 즉 존재는 생성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고 생성은 존재에 선행한다.

현실적 존재는 ‘생성’의 토대 위에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되며 현실적 존재의 생성은 자기 창조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이런 현실적 존재는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의 궁극적 원리로 보고, 과거로부터 재생 반복의 결합과정으로 존재해 왔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계기들의 합성으로 과거

15) 정윤승.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역사이해,” 『화이트헤드연구』 27권(2003), 4-5.

16) 경험의 주체는 인간 즉 몸(신체)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화이트헤드는 경험론자로서 인간의 경험을 통한 과거의 여건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건의 관계성과 합생과 파악을 중요하게 다룬다.

17) 문창욱,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서울: 통나무, 2002), 39.

요소와의 결합으로도 생겨난다고 보았다. 현실적 존재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서부터 주어진 조건들에서 시작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가능한 주체적 존재인 것이다.¹⁸⁾

현실적 존재는 ‘주어진’ 조건의 산물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 이 존재는 자율적인 존재이지만, 이미 주어진 과거의 시공간에서의 여건을 무시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을 통해 자기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 자유의 존재는 아니고, 외적으로는 자유롭게 보이나 내적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이다¹⁹⁾ 비록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존재(있음)의 형태가 되어 외적으로 자유롭게 보이지만, 과거의 시공간 안에서의 여건을 토대로 생성된 현실적 존재는 결코 과거의 여건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여건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적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음’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존재는 아니다. 과거에 주어진 여건으로 만들어진 현실적 존재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존재가 아닌 또 다른 현실에서의 존재이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 ‘그 때의’ 현실적 존재를 객체화 시키고, 그 뒤에 따르는 현실적 존재 즉 ‘지금 이 순간’의 현실적 존재들에 객체화 되면서 지금의 그것과의 동일성을 지닌다. 현실적 존재는 ‘근본적인’ 상호관계성을 지닌다.²⁰⁾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는 과거 ‘그 때 그 시간’의 존재와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지닌다. 과거의 여건은 곧 지금의 현실적 존재와 연결된다. 현실적 존재는 새로운 창조라는 자기 주체적 활동에서 그 존재의 특이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과거의 것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으로서의 창조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본래적으로 존재

18) 위의 책, 41-42.

19) 위의 책, 41-42.

20) 위의 책, 44.

하던 것에서의 자기 창조적 활동이다. 화이트헤드는 자기 구성의 완결로서 주체적 존재를 자기 초월적 존재라고 했다.²¹⁾ 자기 창조적 활동에서의 현실적 존재는 완전한 변화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과거의 여건을 토대로 한 창조적 활동이다. 시간의 변화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서로 연결되고 변화라는 과정은 그의 철학에서 주된 관심사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생성의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있음(being)'은 존재의 생성 과정에 따른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생성이 존재보다 더욱 기본적인 범주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에게서 '있음(존재)'은 '생성'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이것은 '과정의 원리'이다.²²⁾

현실적 존재는 생성 중에 '살아있는' 존재이다. 생성 과정이 마무리되면 존재는 끝이 나고, 현실적 존재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소멸된다. 그에게서 모든 과거의 현실적 존재의 '있음(being)'은 단지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에 생성된 순간들이 이제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생했던' 기억이나 사건들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여건의 형태로서 토대가 된다. 이에 과거의 여건은 여전히 현재와 미래의 순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은 객체적으로 여전히 불멸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는 과거에 존재했던 '그 때'의 현실적 존재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없지만 여전히 확고한 사실(stubborn facts)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의 확고한 사실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적 진진(creative advance)'의 과정을 거친다.²³⁾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확고한 사실은 미래의 창조적 과정을

21) 위의 책, 44-45.

22) 토마스 호진스키, 『화이트헤드철학 풀어읽기』, 58-59.

23) 위의 책, 60.

만드는 토대가 된다.

2.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매개적 존재로서의 신체

유기적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유기적인 타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있고, 동시에 살아가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함의를 지닌다. 또한 객체적으로 불멸성을 지닌 과거의 ‘생생했던’ 기억과 과거의 실재들은 비록 현실적 존재에서 (과거의) ‘그 순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객체적으로 불멸성을 획득하여 현실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론적 존재와는 달리, 유기적 존재는 과거 그 때 그 순간의 여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창조’를 수행한다. 유기체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는 현실적 존재의 생성 그리고 소멸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자연은 늘 새롭게 변화한다. 그 변화는 인간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자연은 늘 생성과 소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범주 안에서 과거의 여건을 토대로 ‘새로움’을 재창조해 나가는 유기적 생명이다. 현실적 존재의 생성과 소멸 더 나아가 존재하는 것의 주체는 유기체적 존재이다. 인간의 몸과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은 유기적 존재 그 자체이다. 인간의 몸은 현실적 존재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건을 이어가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유기적 존재는 시간을 거치면서 생성과 소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창조적이고 활동적 재생산의 연속이 발생된다. 비록 생물학적 유한성으로 인해 모든 생명체들은 소멸하게 될 것이지만, 유기적 존재의 생(生)이 다해 갈 때까지 계속 자기 창조적 활동은 반복된다.

현실적 존재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늘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존재는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다. 이는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끊임없

이 변화해가는 살아있는 특성을 간직한다.²⁴⁾ 현실적 존재는 유기체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유기적 존재들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또 다른 생성의 과정을 거친다.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르게 화이트헤드에게서 현실적 존재의 생성은 유기적 활동으로서의 생성이다. 그가 말한 현실적 존재는 자아-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이 존재는 과거와 현실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재이며 이러한 매개는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몸은 과거의 여건과의 매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거쳐 또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 존재는 몸(신체)의 경험과 관련되고, 몸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유기적 존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기적 존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호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유기적 존재인 자연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적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은 과거 자연 상태에서 지금 자연 상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존재라고 불리는 모든 유형들은 ‘현실적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현실적 존재와 별개로 간주되는 존재는 공허한 추상에 불과하다.²⁵⁾ 모든 존재는 현실적 존재와 별개일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존재론적 원리(ontological principle)’를 제시한다. 실재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험에 있는 현실적 사물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는 “현실적인 존재가 없다면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²⁶⁾

24) 전철, “후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체계와 환경의 문제,” 『화이트헤드연구』 18권(2009), 133-134.

25) 문창욱,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46.

26) 토마스 호진스키, 『화이트헤드철학 풀어읽기』, 54-55.

인간의 몸은 행위의 주체 그 자체이다. 경험의 순간 최초 위상에서 생겨난 파악을 ‘물리적 파악’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파악을 통해 현재의 주체적 경험 계기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객체적 여건들을 파악함으로써 창시된다고 했다.²⁷⁾ 과거의 여건을 합생과 파악을 통해 현실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경험의 주체는 유기적 몸(신체)이다. 하지만 물리적 기체는 과거의 여건을 유기체적으로 합생할 수 없다. 단순히 지식이나 또는 역사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는 있어도 과거의 살아있는 여건들을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직 ‘신체의 경험’뿐이다.

지금까지 이 글은 과거의 ‘그 때’에서 ‘지금’의 현실적 존재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체의 매개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기적 존재들이 가진 ‘정서’와 ‘느낌’이 가져다주는 함의들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정서’와 ‘느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V. 신체의 매개성과 유기적 존재들의 함의들

1. ‘신체적 매개’로서의 유기적 존재: 정서와 느낌

모든 유기체적 존재들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느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다가설 때, 마음에 드는 것 즉 인식하는 이의 마음에 드는 것은 끌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멀리하거나 배척하는 선택의 상호 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²⁸⁾ 배제와 선호의 방식은 목적과 관련된다. 유기적 자원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모든 사건들의 변화를 만들어간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것을 ‘정서’²⁹⁾

27) 위의 책, 116.

28) 김영진,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서울: 그린비, 2012), 347.

라고 말한다.³⁰⁾ 그에게서 정서는 곧 자신 밖의 외부와 연결되는 매개이다. 정서는 곧 몸의 유기적 반응이며 자신과 외부의 여러 여건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에게서 이러한 정서는 곧 신체의 느낌³¹⁾과 무관하지 않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매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신체적 매개를 통해 '순간'이라는 경험의 사태를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신체의 매개 즉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자리'라는 형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모든 환경(자연)을 신체적 경험과 매개된 '현재화'라는 양식으로 투사하고 동시에 구현한다.³²⁾

또한 모든 파악하는 주체와 여건은 느낌과 관련된다. 그는 느낌을 '긍정적인 파악'으로 보고, '부정적인 파악'은 느낌에서 제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둘의 파악은 현실적 존재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느낌은 그 느낌을 향유하는 현실적 존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느낌의 최초 여건은 부정의 파악을 통해 제거되고, 이후 이 여건은 주체적 형식과의 대비를 통해 새로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건은 긍정적으로만 파악된다면 새로운 형식을 가져올 수 없고, 긍정 뿐만 아니라 부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대상을 구성할

29) 정서는 과거로부터 생겨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순간에서 또 다른 순간으로 향유되고 전달되는 과정이다. 정서는 초월과 내재의 두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서 느낌과 지향을 통해 자신의 밖의 사물과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MT. 167), 재인용, (김영진, 2012: 336-337).

30) 김영진,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335-336.

31) 느낌은 현실적 존재자를 구성하게 해 주는 가장 구체적인 요소인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느낌을 '물리적인 느낌'과 '개념적 느낌'으로 나누었다. 먼저 물리적 느낌은 외부와의 여건과 자신의 관계를 의미하며, 물리적 느낌의 향유와 개념적 느낌의 창조적 과정이 현실적 존재자의 목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유기체라고 했다. 그는 유기체로서 실재하는 현실적 존재를 중요하게 다룬다. 위의 책, 337.

32) 전철,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화이트헤드연구』 17권(2008), 14-15.

수 있게 된다. 즉 경험은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통해 발생하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³³⁾

인간의 몸 즉 신체의 경험은 ‘즉각적으로’ 수용과 제거의 과정을 거친다. 느낌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수용과 제거의 과정을 경험한다. 기계론적 구조에서 인간의 몸이 가진 ‘즉각적인’ 수용과 거부의 반응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가진 신체적 매개성은 정서 또는 느낌이라는 수용과 거부의 단계를 통해 세계의 근원과 연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직 인간 즉 유기적 존재로서의 신체를 가진 개체들만이 이를 가능케 해준다. 유기적 구조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동물(개,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세계 즉 대상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응을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본능 또한 자연에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이 매개의 가능성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통한 정서와 느낌을 통해 계승하는 역할을 해 준다. 유기적 존재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그것들(과거의 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낸다. 다만 그 새로운 형태는 과거의 여건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건을 토대로 한 새로움이다. 신체는 과거의 여건을 바탕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주는 창조적 전진을 수행한다. 유기체의 수용과 제거는 정서와 느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이러한 수용과 제거가 발생된다. 자연의 거대한 순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33) Hall, D. “The Civilization of Experience: A Whiteheadian Theory of Culture,” *The Review of Metaphysics*, 1974, 46; 김영진, 2012: 350-351 재인용.

그 안에서 수용과 제거가 보이지 않게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인간의 손길 이 닿지 않아도 자연의 유기적 현상들은 스스로 수용과 제거 또는 긍정과 부정의 파악을 거치면서 생태적 순환을 이끌어 가고 있다.

2. 유기적 존재와 몸의 확장성: 인간, 자연, 하나님과의 관계성

1) 신체의 경험과 몸의 확장성

인간과 동물들은 기계와 달리 ‘몸을 가지고’ 있다. 몸(신체)은 기계에서 보는 부품과는 다르게 정서와 느낌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주체이다. 몸의 반응은 기계에서 작동하는 움직임(운동)과는 다르다. 앞서 화이트헤드가 언급한 것처럼, 몸은 과거와 현재의 현실적 존재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활동 즉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경험의 방식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신체의 경험은 몸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연관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은 주체적 성격을 지니고 외부 세계 즉 대상(객체)과의 상호 작용은 경험을 통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조작되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서로 다른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자기 창조적’인 것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기창조적 몸의 역할은 결국 정서 및 느낌과 연결되며, 이러한 주관적이고 자기 창조적인 활동은 인간의 경험을 단순히 사물이나 대상을 지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신체를 매개로하는 인간의 경험은 ‘미래지향적 진전’을 도모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가 본 창조적 진전은 과거의 여건을 토대로 해서 생성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여건은 신체의 경험(느낌과 정서)을 매개로 해서 또 다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트랜스휴

먼 시대에 인간의 몸은 기계로 대체되거나 그 존재의 가치는 상실될 염려가 크다. 영화 <공각기동대>는 기계(휴머노이드)에 인공지능경망을 이식해서 ‘기계의 인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영화에서 보듯, 미래에는 휴머노이드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유기적 존재들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성을 지닌 존재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포스트휴먼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인간의 몸과 신체가 가진 유기체적 존재의 함의를 다시금 재조명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떠안고 있는 것 같다.

화이트헤드는 유기적 존재를 시공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유기적 존재는 대상과 하나되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과정에서 나타난 신체 경험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론자들에게 목격되었지만, 인간 몸의 유한성과 제약으로 본래적 실체를 인식하기란 한계가 있다.³⁴⁾ 인간의 경험은 유기적 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유기체는 합생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과거와 미래의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신체는 경험의 근거로서의 역할, 외부 세계와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현실적 존재와의 상호 관계성의 역할로 구분했다. 먼저 그는 인간의 신체는 외부 세계와의 경험의 근거라고 보았다.

34) 흄(D. Hume)에 의하면, 그가 인정하는 세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고, 이 세계는 시공간의 방식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외부 세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연이라는 비밀스러운 것을 포함해서 인간 본성에 기초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동시에 이성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신념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상에서 이러한 추상적 세계에 대한 인정에 대해 회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것 또한 신념을 정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적 원리’라고 본다(D.Hume, 2014: 65-69).

시공간 안에서 모든 지각과 감각의 형태는 신체를 통해 시작된다고 보았다.³⁵⁾ 인간의 신체와 유기적 존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재창조해 나가는 존재이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따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유기적 존재의 가치이다.³⁶⁾ 또한 인간의 신체는 외부와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몸은 세계와의 동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체를 통해 '현재화된 지속성'을 유지한다.³⁷⁾

화이트헤드는 시공간 안에서의 외부 대상이 인간의 몸을 통해 감각기관을 거쳐 의식화(두뇌를 거치면서)를 통해 세계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몸은 외부세계와 인식주체와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 동시에 몸의 경험은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또 다시 외부 대상을 재해석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여건과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서의 현실적인 경험과 연결된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과거와 독립된 형태의 새로운 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신체)이 경험한 과거의 다양한 여건과 역사 그리고 개인의 느낌과 정서가 현재의 여건과 결합되어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간다. 지금 이 순간의 여건들은 또 다시 미래의 그 어느 시간을 위한 준비된 여건이 되며 미래의 어느 순간, 그 때에 가서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이 될 것이기에 여전히 과거와 현재에서 신체가 경험한 여건의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몸이 경험한 정서와 느낌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조적 전진을 위한 매개가 된다. 인간의 몸은 과거와 현재에서 경험한 느낌과 정서를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 속에는 긍정과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창조적 전진을 추구해 나

35) 전철,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15.

36) 박일준, "화이트헤드의 공생의 철학," 『화이트헤드연구』 31권(2015), 187-188.

37) 전철,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17.

갈 수 있다. 기계 그 자체는 과거의 여건을 경험할 수 없으며 단순히 데이터(저장)나 알고리즘으로 축적되고 계산된 수치만으로 현재를 파악해 낼 수 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유기적 존재(신체)를 분해하면 각각의 부분들은 제 역할을 상실하고 신체 또한 손상된다.³⁸⁾ 결국 신체는 일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하나의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AI와 같은 기계에게 신체의 일부의 기능을 하는 인공신경망을 업로드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벽한 인간의 몸을 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존재가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 존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신체와 기계를 통합하는 기술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언젠가 AI와 같은 존재들이 인간과 흡사한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 존재들이 반드시 유기적 존재라고 보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다만, 화이트헤드를 비롯해서 일부의 학자들이 기계나 사물도 (언젠가는) 이런 유기적 존재와의 연합을 거친다면 그들 또한 유기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도, 경험 주체로서의 유기적 존재(몸)가 가진 통일성과 정합성은 기계나 사물이 ‘인간화’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현실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파악의 과정에서 기계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유기적 존재는 기름과 전기 에너지로 작동되는 기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존재론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는 미래 시대에게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2) 몸의 전일성과 응답으로서의 몸·신, 인간, 자연의 관계성

성서적 인간의 몸은 전일성(wholeness)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몸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몸의 이해와는 다르다. 과학기술 발

38) 토마스 호진스키, 『화이트헤드철학 풀어읽기』, 64.

전으로 인간의 몸은 완전성을 추구한다. 말 그대로 생물학적 완전성 즉 영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완전성이다. 그러나 성서적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완전성과는 다르다.

신약 성서에서의 몸은 두 가지로 나뉜다. ‘body(몸)’와 ‘flesh(육체)’이다. 육이란 뜻의 사르크스(σάρξ)는 인간의 인격이나 품성이 더해져 있는 의미로서의 몸을 말한다. 여기서의 몸은 본성 그 자체로서의 몸, 다시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흠으로 지으신 그 본래적인 몸을 의미하고, 이 몸은 나약한 의미의 본성적인 측면의 몸이다.³⁹⁾ 신약성경에서의 몸(body)은 하나님이 태초에 흠으로 빚어 만든 존재를 말하고, 육체(flesh)는 태초의 몸(body)이 탐욕과 죄성을 덧입은 존재를 말한다.

기독교적 ‘몸’은 영지주의에서 본 이분법적 구도와는 다르게 제시된다. 로마서에 나타난 몸은 소마(δωμα, soma) 표현된다. 몸은 신체(살, flesh)를 말하는데 신체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배고픔과 목마름(갈증)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준다.⁴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소마(σῶμα, soma)’와 ‘사르크스(σάρξ, sarx)’는 구체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마’와 달리 ‘사르크스’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몸) 즉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몸을 말한다. 하지만 ‘소마’는 현 시대를 초월하는 몸, 시대의 경계선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몸을 말한다. ‘사르크스’는 구속 이전의 몸으로서 세속적이고 죄성이 있는 몸이다.⁴¹⁾ ‘사르크스’는 육신(sarx)으로 표현되는 데, 이는 연약하고 육체적 요소로 욕망의 산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서 육신의 약함에 늘 노출된 존재이다.⁴²⁾

39) Robert J.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108-109.

40) 김은혜, “포스트 바디 시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 『신학과실천』 68(2020), 774.

41) 제임스 턴, 김철·채천석 역, 『로마서 1-8』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3), 667-668.

42) 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48.

‘사르크스’는 문자 그대로 육체, 즉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최성을 지닌 존재를 말한다.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향하기 보다는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 사르크스의 삶은 하나님의 지향성과는 동떨어진 삶이자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된다.⁴³⁾ 인간의 몸은 연약함으로 늘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소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몸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현존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⁴⁴⁾ 소마는 성경에서 인간의 몸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지체, 성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연장선상에 놓인 존재이고, 사르크스는 인간의 세속성과 부패성을 담고 있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서 표현되고 있다.

성경에서 본 육체는 성육신의 몸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연약하고 늘 한계를 지니는 신체를 말한다. 그러나 몸은 완전한 몸 즉 성육신으로서의 몸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육화된 몸’ 다시 말해 성육신의 몸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몸은 자연에 공감하고 하나님으로 향한 적극적인 활동의 주체로서의 몸을 말한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육신한 완전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포스트휴먼 시대에 몸은 자연친화적 신체의 부분들을 해체시키고 부족하고 연약한 유한성을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되려는 무한성을 추구하게 된다. 성육신의 표본은 말씀이 되었고 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일치된 몸을 말한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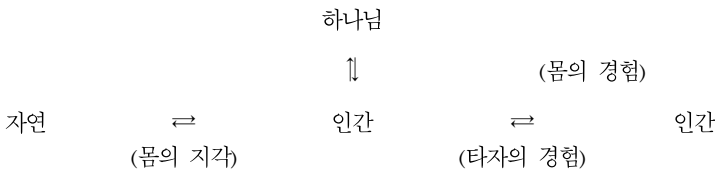
하나님의 드러냄 즉 계시는 단순히 추상적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을 넘

43) 홍순원, “바울의 몸 개념의 사회 윤리적 지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2017), 86-87.

44) 앤서니 C. 티슬턴, 권연경 역, 『고린도전서』 (서울: SFC 출판사, 2011), 181-183.

45) 김은혜, “포스트 바디 시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 776.

어선다. 이는 신념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지각(경험)에 기반하여 인식된다.⁴⁶⁾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는 우리의 몸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고 몸은 초월적 경험과의 연계성에 있는 실제치자 초월과 유한의 경험의 장(場)이다.



먼저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놓여 있다. 몸은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매개체이다. 몸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의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매개인 동시에 자연을 타자로 보고 그 자연에 대한 책임적 주체로서의 존재가 된다. 더 나아가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의 확장성까지 요구되는 주체이다.

특히 바울은 인간의 몸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관계성에 주목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의 죄성으로 인해 분쟁과 음행 그리고 분열로 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보고,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의 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몸을 말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일치되는 몸을 말하고 있다.⁴⁷⁾

46) 장호광,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에서 나타난 상호 몸성,” 『조직신학연구』, 43(2023), 202.

47) 임현철, “고린도서에서의 몸의 신학적 의미,” 『성서마당』, 106(2013), 211-212.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 거듭남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장 17절)로서의 회복을 강조한다.⁴⁸⁾ 이는 인간의 몸이 우리(자신)의 중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중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아간다. 이 자연은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함께 영위되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과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과의 연대성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존재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류는 경작이라는 역할을 부여 받았고(창 2장 15절)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창 2장 18절)⁴⁹⁾ 인류는 자연 생태계와의 지속적인 연대와 책임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작’이라는 역할을 준 것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인간은 해마다 추수 때 경작을 통해 자연의 소산을 거두면서 살아간다. 경작은 일회적인 의미로서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도 또 다시 경작을 통해 추수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경작은 지속적인 자연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의미하고, 그것은 자연 생태를 보호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인 것이다.

끝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연대를 다른 인류에게 확장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 있음으로서의 창조이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연

48) 위의 글, 193.

49) 최경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316.

대성을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다. 다시말해 자연은 인간에게 돌봄을 수행하게 한다. 즉 인간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자연을 계속 가꾸어가는 책임적 주체이자 상호 보완적 관계성을 맺는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레비나스(E.Levinas)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에서의 연대를 제시한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는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타자를 관찰하고 관계 속에서 타자의 살아가는 모습, 타자의 연약한 얼굴, 타자의 행동을 보면서 근접한 거리에서의 관계성을 말한다.⁵⁰⁾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일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늘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소위 ‘이웃사촌’처럼 늘 가까이 숨을 쉬면서 함께하는 존재와의 책임과 연대를 말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연대 속에서의 책임 즉 그들의 보살핌에 주목한다.⁵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근접한 관계 그리고 자연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역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끝으로 타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자연 안에서 인류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성에서의 인간의 몸은 관계성의 주체이다. 우리가 맺고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는 모두 인간의 몸의 경험과 지각을 통해 가능하다.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이 글은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와 신체 경험의 여건들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포스트휴먼 시대 또는 AI 기술로 인해 인간의 지능

50) 성신형,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울출판사, 2018), 65-66.

51)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 (2015), 197.

까지 따라가는 도덕적 기계들의 출현으로 인류는 유기적 존재가 지닌 가치들을 재고하는 시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류는 신체증강 기술을 통한 생물학적 완전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완전성은 오직 신체를 개량하거나 생물학적 기능의 추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매개체는 다른 아닌 인간의 몸(신체)이다. 인간은 신체를 통해 과거의 다양한 여건들을 이해하고 또 현재에 와서 과거의 여건들을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외부의 여건들을 기억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저장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신체의 경험으로 다시 외부 세계에 반응한다. 이처럼 유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몸과 자연의 생태적 순환은 알고리즘으로 이해되는 기계들의 반응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다. 나뭇잎은 인간과 과학 기술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광합성을 만들어 내고 연어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바다에 머물다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어는 자신의 인지 기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⁵²⁾ 기계나 AI는 자연의 유기적 현상을 따라할 수 없다.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과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할 수 없는 유기적 존재의 방식을 가진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몸은 기계나 AI 기술로 구현될 수 없는 유기체이다. 미래에 AI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해도, 여전히 인류는 몸과 자연의 유기적 생명의 가치를 재고해야 하고, 유기적 개체가 지닌 '창조적 전진'을 가진 존재로서의 함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의 완전성과 몸을 기계로 대체하여 수

52) 폴린 콜먼, 『휴먼알고리즘』, 76-77.

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완전성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유기적 존재의 몸을 지닌다. 유기적 존재로서의 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향하고, 동시에 자연 그리고 타자(인류)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 온전한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의 회복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 생태학적 관계는 사회 안에서 매개된 관계성을 가진다.⁵³⁾ 이러한 관계성 상실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래의 기술 사회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가는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적 인간의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멸을 추구하는 AI 과학 기술 시대에 성서적 인간 이해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제고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53) 전용호·최경석,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61(2025), 124.

참고문헌

- Coleman, Flynn/김동환 · 최영호 역. 『휴먼알고리즘』. 서울: 씨아이알, 2002.
- Douglas, J/김철 · 채천석 역. 『WBC 로마서 1-8』. 서울: 솔로몬, 2003.
- Gray, Chris Hables/석기용 역. 『사이보그 시티즌』. 서울: 김영사, 2016.
- Herbrechter, Stefan/김영순 · 김응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Hosinsi, T.E/장왕식 · 이경호 역. 『화이트헤드철학 풀어읽기』. 서울: 이문출판사, 2006.
- Hume, D/이준호 역.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서울: 살림출판사, 2014.
- _____/김혜숙 역.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Hall, D. “The Civilization of Experience: A Whiteheadian Theory of Culture”, *The Review of Metaphysics*, sep, 1974.
- Pepperell, Robert./이신주 역. 『포스트휴먼의 조건』. 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17.
- Thiselron, A.C. 권연경 역. 『고린도전서』, 서울: SFC 출판사, 2011.
- Whitehead. A.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김영진.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서울: 그린비, 2012.
- 김은혜. “포스트 바디 시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 『신학과실천』 68(2020), 759-784
- 문창욱.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서울: 통나무, 2002.
- 박일준. 2015, “화이트헤드의 공생의 철학.” 『화이트헤드연구』 31(2015), 167-205.
-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77-201.
-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아카넷, 2017.
- 임현철. “고린도서에성의 몸의 신학적 의미.” 『성서마당』 106(2013), 193-218.
- 전 철. “초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체적 경험의 문제.” 『화이트헤드연구』 17(2008), 9-33.

- _____. “후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체계와 환경의 문제.” 『화이트헤드연구』 18(2009), 125-147.
- 장호광. “메틀로퐁티의 몸 철학에서 나타난 상호 몸성.” 『조직신학연구』 43(2023), 184-212.
- 정윤승.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역사이해.” 『화이트헤드연구』 27(2013), 7-35.
- 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최경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0(2021), 305-333.
- 전용호·최경석.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61(2025), 107-133.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서울: 아카넷, 2016.
- 홍성원.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서울: 리더리드, 2021.
- 홍순원. “바울의 몸 개념의 사회 윤리적 지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2017), 83-104.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트랜스휴먼 시대가 등장하면서 기계론적 사회의 변화들은 많은 윤리적 함의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미래 사회는 인간의 몸에 대한 유기적 가치의 상실을 가져 올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트랜스휴먼 시대에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완전성을 추구한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유기적 존재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와 타자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맺는다. 유기체적 존재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경험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창조적 전진’의 과정을 거친다. 유기적 존재는 기계와는 다른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험주체이다.

기독교에서 본 인간 몸의 완전성은 생물학적 영생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죄에 놓여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은 관계성에서 완성된다. 이에 이 글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생물학적 몸의 완전성을 비판한다. 또한 진정한 몸의 완성은 생물학적 신체 기능의 증강이 아닌 신, 인간 그리고 자연의 유기적 관계성에서 재발견된다.

주제어: 트랜스휴머니즘, 전일성, 생물학적 완전성, 상호관계성, 현실적 존재, 유기적 관계성
